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임원선거 출마소건문

1. 후보자 인적사항

구 분	위원장 후보	부위원장 후보
성 명	손동우	김호엽
소 속	IT·공과대학 행정실	교육혁신팀

2. 출마소건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께,

지난 10여 년간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 정부의 정책 변화 등 유례없는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 속에서도 조합원 여러분께서 일터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탱해 오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씩 속았수다!”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학령인구가 당분간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2032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슬기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견디는 것을 넘어 바꿔야 할 때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 동료들이 37명¹⁾(17.5%) 줄었습니다. 휴직 인원까지 고려하면 업무 부담은 더 늘었고, 복지와 수당은 후퇴했습니다. 2024년 임금은 1.6% 인상되었지만, 이는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채 오랜 동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총장은 출마 시 등록금 인상없이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임금 인상은 등록금 인상과 별개로 경영 합리화를 통한 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적된 업무과중과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처우와 복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차고 넘칩니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누구를 위한 조직이어야 할니까?

젊은 조합원, 중간 관리자, 선배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노조가 아니라, 모든 조합원이 함께 가는 노조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챙겨주는 공동체문화도 복원하겠습니다.

신규 직원이 와도 선배 직원이 퇴직해도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더욱 자주 모일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정기적으로 열어 소원해진 우리의 가족애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려 합니다.

- 대학본부, 법인, 교수회와 협치는 하되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 조합 집행부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함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 불합리한 노동조합 조직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 워라벨을 넘어 '워라하'(Work & Life Harmony), 다시 말해 일과 삶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화를 만들어 눈뜨면 오고 싶은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다가올 총장 선거에서도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 동안 저희 두 사람을 어떻게 봐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이 소중한 일터에서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일터를 바꾸는 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내 일터를 사랑하는 손동우 · 김호엽 올림

2025 년 5 월 22 일

위원장 입후보자 손 동 우 (인)

부위원장 입후보자 김 호 엽 (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귀중